

2018년 10월 17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강력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급등

다우 +2.17%, 나스닥 +2.89%, S&P500 +2.15%

미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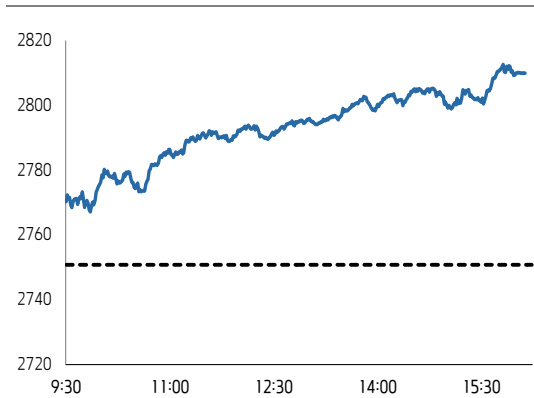
미 증시는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 상승 출발. 특히 유나이티드헬스(+4.73%)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헬스케어 업종이 상승 주도. 아마존(+3.35%)도 전자책 리더인 킨들의 새로운 버전을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하는 등 개별 호재성 재료도 영향(다우 +2.17%, 나스닥 +2.89%, S&P500 +2.15%, 러셀 2000 +2.82%)

최근 미 증시는 실적 시즌이 진행되며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급등락을 보이는 등 변동성은 확대되는 경향. 10월 4일 '스파이칩' 이슈가 발생한 이후 기술주 실적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지난 10일에는 바클레이즈가 인터넷 관련주에 대한 실적 둔화를 경고하자 나스닥이 4.08% 급락. 그러나 지난 12일에는 일부 투자은행들이 기술주에 대한 양호한 실적 가능성을 제기하자 나스닥이 2.29% 급등 했었음.

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이어질 때는 ①경제적인 펀더멘털이 변화 ②리스크 요인의 확대 ③수급 등 유동성 변화 ④대외적인 변수가 발생 여부 등을 점검. 그러나 미국 경기는 여전히 견고하고, 미-중간의 무역분쟁이 더욱 격화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브렉시트, 이탈리아 이슈가 확대되지 않고 있어 변화 요인으로 볼 수는 없음.

그렇다면 유동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상반기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전년 대비 48%(3,840억 달러) 급증하며 미 증시 상승을 이끌었음. 그러나 미국은 실적 발표 한달 전부터는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게 됨. 10월 5일에는 S&P500 기준 86% 기업들이 이 기간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시장에 수급적인 부담. 지난 2월 초 미 증시 급락도 관련 이슈였다는 분석이 지배적. 이러한 블랙아웃 기간 미 증시는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특히 자사주 매입 활동이 활발했던 기술주 등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은 이어질 듯.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145.12	0.00	홍콩항셱	25,462.26	+0.07
KOSDAQ	731.50	+1.76	영국	7,059.40	+0.43
DOW	25,798.42	+2.17	독일	11,776.55	+1.40
NASDAQ	7,645.49	+2.89	프랑스	5,173.05	+1.53
S&P 500	2,809.92	+2.15	스페인	9,074.70	+1.69
상하이종합	2,546.33	-0.85	그리스	644.66	+1.61
일본	22,549.24	+1.25	이탈리아	19,717.83	+2.2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헬스케어 업종 상승 주도

유나이티드 헬스(+4.73%)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Anthem(+4.13%), 메트로닉(+2.91%) 등 헬스케어 업종을 비롯해 암젠(+3.45%), 길리어드사이언스(+4.85%) 등 바이오주도 동반 상승 했다. 모건스탠리(+5.68%), 골드만삭스(+3.01%)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했다. JP모건(+2.14%), BOA(+2.18%) 등 금융주도 동반 상승 했다. 아마존(+3.35%)은 전자책 리더인 킨들의 새로운 버전을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제품이 시장의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테슬라(+6.55%)는 미국 법원과 증권 분쟁 관련 타결을 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 했다.

마이크론(+2.05%), 인텔(+3.17%) 등 반도체 업종도 상승 했다. 지난해 11월 반도체 업황 피크 논란을 불러왔던 모건스탠리가 최근 반도체주 매도세가 과도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힘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은 이어갔다. 넷플릭스(+3.98%), IBM(+2.83%), 크리(+7.20%)는 실적 발표한 이후 시간외로 마이크론이 13%, 크리가 7% 급등 중이다. 다만 IBM은 4% 내외 하락 중이다. 알파벳 등 FANG 기업들도 1% 내외 상승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1.45%	대형 가치주 ETF	+1.50%
에너지섹터 ETF	+0.57%	중형 가치주 ETF	+1.74%
소매업체 ETF	+1.75%	소형 가치주 ETF	+2.12%
금융섹터 ETF	+1.63%	배당주 ETF	+1.38%
기술섹터 ETF	+3.01%	변동성 ETF	-6.90%
소셜 미디어업체 ETF	+3.05%	대형 성장주 ETF	+2.56%
인터넷업체 ETF	+3.44%	중형 성장주 ETF	+2.80%
리츠업체 ETF	+1.87%	소형 성장주 ETF	+3.43%
주택건설업체 ETF	+2.24%	신흥국 고배당 ETF	+2.19%
바이오섹터 ETF	+4.23%	신흥국 저변동성 ETF	+1.72%
헬스케어 ETF	+2.74%	하이일드 ETF	+0.42%
곡물 ETF	-0.08%	물가연동채 ETF	0.00%
반도체 ETF	+3.39%	Long/short ETF	+0.3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40.77	+0.87%	-6.23%	-1.78%
소재	341.93	+1.81%	-2.02%	-8.30%
산업재	633.18	+1.66%	-3.37%	-5.21%
경기소비재	880.65	+2.22%	-1.66%	-5.16%
필수소비재	548.18	+1.05%	-1.44%	-2.10%
헬스케어	1,076.25	+2.90%	-1.54%	-0.44%
금융	443.91	+1.60%	-4.77%	-5.00%
IT	1,259.74	+3.02%	-1.72%	-3.22%
커뮤니케이션	155.01	+2.34%	-0.92%	-2.36%
유틸리티	272.89	+1.16%	-0.95%	-0.27%
부동산	195.28	+1.91%	-2.21%	-5.2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반도체 업종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1.99% MSCI 신흥 지수도 2.51%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409계약)에도 불구하고 2.80pt 상승한 280.4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2.6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강력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급등 했다. 특히 바이오와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 했다. 미-중 간의 무역분쟁 여파로 향후 가이던스 하향 조정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견고한 실적은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증시 또한 이러한 글로벌 증시의 상승에 힘입어 반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미 증시 마감 후 넷플릭스(+3.98%)와 IBM(+2.83%), 크리(+7.20%) 실적 발표가 있었다. 견고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시간 외로 넷플릭스는 13%, 크리는 7% 급등하고 있다. 이 또한 투자심리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IBM은 4% 내외 하락 중이다. 매출 성장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데 따른 결과다. 한편, 지난해 반도체 업황 피크 논란을 불러왔던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관련주가 과도하게 하락 했다고 언급하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31% 급등 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주목할 부분은 여전히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결과다. 시장 예상과 같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면 위안화 등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된다는 점에서 이 또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감안 오늘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순매수 가능성이 높아지며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개선

9 월 미국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증가 했다. 예상치(+0.2%)를 상회했다. 제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상승 하며 예상과 부합되었다. 한편, 공장 가동률은 전월과 같은 78.1%로 발표되었다.

10 월 미국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67) 보다 상승한 68 로 발표되었다. 주택건설업체들의 심리지표라는 점에서 최근 둔화되고 있는 주택지표가 향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8 월 채용공고는 전월(694 만건) 보다 증가한 710 만건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 했다. 특히 금융, 헬스케어 등 전문 서비스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소매판매, 제조업 등은 소폭 감소 했다. 한편, 이직률은 2.7%로 유지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달러, 미 국채금리 보험권 혼조세

국제유가는 주가지수가 급등하고, 양호한 경제지표가 발표되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데 힘입어 상승 했다. 다만, 미국과 사우디와의 분쟁에 주목하며 상승은 제한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인 실종 사건에 사우디 왕실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사우디를 방문해 “사우디 정부가 투명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 데 감사한다” 라고 표명하는 등 관련 이슈가 봉합되는 과정을 보인 점도 상승 제한 요인이었다.

달러화는 견고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 및 신흥국 통화 강세 영향으로 보험권 등락에 그쳤다. 유로화는 독일의 경제지표가 둔화되고, 이탈리아 의회가 2019 년 예산안을 EU 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인한 점이 부담이 돼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영국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 기대를 높이는 발언을 하고, EU 또한 브렉시트 협상 타결을 언급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한편, 역외 위안화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여타 신흥국 환율은 글로벌 주식시장 강세에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 했다. 고용지표와 산업생산이 양호한 결과를 발표하자 금리는 상승 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의회가 2019 년 예산안을 마무리 지었으나 EU 집행위가 이를 거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여전히 리스크 요인이 남아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되며 상승은 제한 되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점이 부담이다” 라고 주장한 점도 일부 영향을 줬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와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 가격은 0.20%, 철근도 0.27%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71.92	+0.20	-4.06	Dollar Index	95.074	+0.02	-0.62
브렌트유	81.41	+0.78	-4.22	EUR/USD	1.1575	-0.03	+0.73
금	1,231.00	+0.06	+3.32	USD/JPY	112.31	+0.48	-0.58
은	14.701	-0.18	+2.09	GBP/USD	1.3186	+0.26	+0.33
알루미늄	2,034.00	+0.35	-1.07	USD/CHF	0.9906	+0.32	-0.16
전기동	6,215.00	-1.36	-1.22	AUD/USD	0.714	+0.14	+0.52
아연	2,606.00	+0.27	-2.69	USD/CAD	1.2944	-0.36	-0.02
옥수수	375.25	-0.79	+2.95	USD/BRL	3.7222	-0.38	-1.51
밀	523.50	-0.29	+1.65	USD/CNH	6.9138	-0.13	-0.04
대두	884.75	-0.76	+2.52	USD/KRW	1128.00	-0.56	-0.41
커피	117.65	-1.42	+3.98	USD/KRW NDF1M	1122.61	-0.78	-0.77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3.160	+0.38	-4.68	스페인	1.641	-3.60	+4.30
한국	2.375	-0.50	-6.70	포르투갈	1.935	-6.10	-3.50
일본	0.148	+0.40	-1.30	그리스	4.256	-11.20	-30.20
독일	0.491	-1.20	-5.80	이탈리아	3.450	-9.20	-2.20